

美국의 자연·환경 斷想12題



朴 昌 根

(本會고문 · (社) 환경교육회 회장)

이 글은 박창근 회장님께서, 미국의 YOSEMITE 국립공원에서 보내주신 미국의 자연·환경에 대한 斷想 중에서 12편을 정리한 것입니다. (편집자 주)

1. (자연을 관찰할 수 있는 자격)

요세미티 국립공원은 미국내에서도 대표적인 국립공원으로 연중 인파가 끊이지 않는 관광지입니다. 하루에도, 수천명의 인파가 방문하고 떠나지만, 겉으로 언뜻 보기에는 인파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조용하고, 차분합니다. 그것은, 자연을 경외함으로 써 갖게 되는 질서의식 때문에, 혼잡이나 무질서가 개입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자연을 찾아 느끼고, 깨닫고 그 질서의식으로 다시 조용히 자연을 떠나는 심성이야말로, 진실로 자연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라고 하겠습니다.

2. (정성들여야 할 공원 기념품)

미국의 국립공원엔, 그곳 특징의 기념품을 섬세하고, 예술적인 감각으로 만들어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랜드캐년의 기념품은 그랜드캐년에만 있고, 요세미티의 기념품은 요세미티가 아니면 구할 수 없습니다. 말하자면, 국립공원의 기념품은 그곳 공원이 아니면 구할 수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이에 비해 우리의 국립공원 기념품은 어느 곳이나 똑같은 것들뿐이어서, 기념품으로서의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특정 공원을 기념할 수 없습니다. 정성들인 우리의 기념품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3. 〈자연 관광은 절제있게...〉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의 하나인 자연의 신비입니다. 그런데도 관광객이 그 자연을 조망할 수 있는 포인트는 몇 개 밖에 없습니다. 말하자면, 무리하게 너무 많이 자연을 포식함으로써, 오히려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지 못하게 한 배려로, 우리가 본 받아야 할 자연 관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자연은 조금씩 그리고 반복하여, 만나는 속에서 한발, 한발 깊이있게 깨닫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성급하고 욕심많은, 자연관광 방법이 바뀌어야 하겠습니까.

4. 〈자연에 대한 인간의 자세〉

자연은 자연 그대로의 조화와 질서로 짜여져야 균형을 잘 이룰 수 있습니다. 인간의 간섭은 오히려 자연의 균형을 깨뜨릴 뿐입니다. 미국의 국립공원엔, 인간의 간섭이 별로 눈에 띄이지 않습니다. 거목이 낙엽을 맞아 쓰러져 있어도, 산 비탈이 폭우로 무너져 있어도, 애써 손질을 가하지 않습니다. 그 모두가 자연의 질서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연은 자연 그대로 훌륭하게, 활발하게 잘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 받아야 할 자연에 대한 인간의 자세입니다.

5. 〈자연 관광은 인생 교육입니다〉

미국의 요세미티 국립공원에는, 공원을 관광시키는 관광 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 관광버스가 이 버스는 자연교육을 시키는 움직임은

교실입니다. 즉, 관광버스는 유명한 호수, 계곡, 산 등을 순회하면서, 그 호수와 계곡 그리고 산 등에 대한 생태학적인 배경을 깊이 있게 설명해 줌으로써, 관광객들에게 흥미보다는 자연의 외경을 더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은 더 자연을 사랑하게 되고, 더 인생을 깊이 있게 생각하게 해줍니다.

6. 〈산에는 쓰레기통이 필요 없습니다〉

쓰레기통은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 설치해 놓는 것입니다. 따라서 쓰레기를 버릴 필요가 없는 곳엔 쓰레기통을 설치해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의 대부분의 국립공원에는 몇몇 주차장이나, 야영장이 외에는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특히, 산 정상 부근에는 쓰레기통이 전혀 없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의 산에는 곳곳에 쓰레기통을 설치해 놓는 지나친 친절로 산이 쓰레기로 오염되고 있습니다. 산은, 쓰레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인생 수양의 도장입니다. 따라서 산에는 쓰레기통을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7. 〈기능적인 도시보다는, 환경적인 도시로...〉

이제 도시는 옛날과 달리, 기능적인 면보다 환경적인 면이 더 치중됩니다. 즉, 편하기의 기능보다는, 살기 쾌적한 환경이 더 중요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살기 위해서라면 기능적인 면이 중요하지만, 사람답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환경적인 면이 더 강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뜻에서, 서울을 기능적인 도시보다는 환경적인 도시로 가꾸어야 하겠습니까.

환경칼럼

흔히,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시를 세계적인 대기 오염의 상징도시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L.A의 환경적인 조건에 비해 시내의 공기는 맑고, 깨끗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흰 옷을 하루 밖에 입을 수 없는데 비해, L.A에서는 닳새를 입어도 더럽지 않습니다. 즉, 먼지가 없는 거리 때문에, 실제로 생활적인 측면에서는 대기오염의 피해를 만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L.A의 거리 공간에는 정말 산소를 방출하는 나무와 먼지를 흡수하는 잔디가 시민의 자발적인 의지로 가꾸어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L.A의 환경은 L.A 시민의 의식으로 보호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웬만한 도로에서는 자동차의 경적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경적을 울려야 할만큼, 급하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차가 밀리면, 앞에 무슨 일이 있어 밀리는가 보다고 생각해 여유를 갖고 기다립니다. 이런, 기다림의 자세가 오늘의 미국 대도시를 조용한 거리로 형성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여유있게 기다리는 자세로 도시의 짜증스러운 소음을 막아야 하겠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의식속에서, 자가용차는 교통수단이기 보다는 지위와 부의 상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하면, 훨씬 더 편리하고 좋을 곳도 애써 자가용차를 몰고 가야 직

성이 풀리는 잘못된 생각으로, 우리의 교통체증은 지옥이라는 말로 표현됩니다.

새해부터는 우리도 올림픽을 치루는 나라의 국민답게, 자가용차를 교통수단으로 평가하고 이용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보다 잘 사는 미국의 교통질서는 잘 사는 만큼 풍요합니다. 즉, 신호등이 없는 네거리 같은 곳에서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 양보하며 순서대로 비껴 지나갑니다. 저 차 다음은 저쪽 차 그리고 내 차례라는 질서와 양보의식이 몸에 배어 모든 차방들이 물 흐르듯이 흘러갑니다. 서로, 먼저 가려고 이 눈치, 저 눈치를 보고, 앞지르면 오히려 더 교통 소통이 막혀 불편해집니다. 양보와 질서의 운행이 아쉽습니다.

뉴욕, 파리, 런던 그리고 도쿄 등은 세계적인 도시로 경제와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도시의 간판들은 하나같이 작고, 단순합니다. 즉, 간단히 무엇을 파는 가게라는 표시와 건물의 모양과 어울리는 색으로 간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사무용 빌딩의 경우도, 요란한 상징물이나 거창한 간판보다는,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린 형태의 간단한 간판이 전부입니다. 이에 비해, 우리의 간판형태는 너무 크고, 복잡하며, 자극적입니다. 세계에는 문화국가다운 차분한 간판을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24